

강진군, 겨울 한파 대비 마늘·양파 관리 당부

강추위 대비 월동채소 동해 피해 예방 홍보 이미 피해 입은 마늘·양파 흙으로 덮어줘야

강진군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파와 마늘 서릿발 피해 및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발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상순 평균 기온이 기상청 기준 -3.1℃로 평년 기온인 1.0℃보다 낮게 나타났고, 특히 최저기온은 올해 -15.3℃로 평년 -4.2℃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기온 또한 평년보다 비슷하

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로 노지재배를 하는 마늘과 양파에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와 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급격한 한파로 배수 상태가 나쁜 토양에서는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배수구를 정비하여 습해 및 서릿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미 피해를 입어 솟구쳐 오른 마늘과 양파

는 잘 눌러주고 흙으로 덮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가 나타난 포장에서는 2월 중순부터 옷겨를 주기를 통해 세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많은 옷겨를 넣는 자칫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마늘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 무름병이나 잎집 썩음병과 같은 세균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방제와 함께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양파에서는 습할 경우 무름병과 함께 노균병 발생이 만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2월부터 예방적으로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
은 "월동 중인 마늘과 양파는 관리 방법에 따라 수확량 차이가 크므로 재배

농가에서는 기상 여건에 따라 적절한 포장 관리에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의회 허공희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쉐린지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쉐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쉐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큰 변화를 염원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펼칠 수 있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쉐린지 참여는 자치분권 시대에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실린 사인을 SNS에 게재 후 다음 쉐린지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공희 의장은 대구 수성구의회 조웅성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허공희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주민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완도군의회가 선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시대의 의지를 다졌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어민 소득 향상 위한 관산-회진 관리 수면 지정

관산마을 4개 어촌계, 새조개 189톤 채취 가능



장흥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로부터 관산 삼산지선 81ha를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산마을의 4개 어촌계(산서·산동·우산·어음)에서 잡수기와 형망어선을 이용하여 새조개 189톤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관리 수면 지정은 지난 7일에 지정된 회진 신상지선 119ha와 함께 장흥군 어촌계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장흥군은 관산읍·회진면 수

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을 위해 장흥군 수주제로 6개 어촌계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며 어촌계 의견 수렴과 잡수기·해녀 등 각종 분쟁을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성수 장흥부군수가 전라남도 현장 조사 당시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관리 수면 지정을 통해 새조개라는 한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어촌계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 채취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어민과 어촌계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귀농인 보조·융자 지원 사업 접수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귀농 분야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조 사업은 2월 10일까지, 융자 사업은 2월 8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서 접수 받는다. 먼저 보조 사업은 ▲귀농인 정착지원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 청장년 창업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농가주택 수리 등 총 3억 6,2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 사업은 농업 창업, 주택 구입과 관련 연 2% 금리로 최대 3억7,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으로 진도군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양곡 톨백 포장재 지원사업 접수 벼·맥류 재배농가 톨백구입 비용 80% 지원

해남군은 양곡(벼 및 맥류)을 직접 생산해 톨백(800kg)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곡 톨백 포장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톨백 지원사업과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양곡 톨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사업량은 3만 1,000매에서 12만 매로, 지원 비율은 50%에서 80%로 증가했다. 군은 농작업의 기계화 및 농촌 고령화로 벼, 맥류 등 톨백 수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과 협력해 톨백 구입비용의 80%(군비 40% 농협 40%)를 지원하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신청은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가에서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재배면적(출하량)에 따라 톨백(일반벼·친환경인증벼·공공비축미·맥류) 지원량이 통합 배정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영세농, 중소농이 우선 공급되도록 대규모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개인 4ha, 법인 10ha로 제한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민원 서비스 향상' 전 직원 비대면 온라인 친절 교육

22일까지 5회 걸쳐 진행

장흥군은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친절 민원 응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친절 교육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 교육 방식에서 군 내부 행정망 소통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시작의 변화 관리, 언택트 시대 서비스'라는 주제로 KT CS 대표 강사인 박해화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다원화되는 군민들의 행정 요구에 맞춰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한 전화 응대 부진 항목을 되짚어 보고, 기본적인 응대 프로세스 스킬과 군민 중심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기법

소개된다. 이번 친절 교육은 코로나 시대에 생활할 수 있는 민원 해결책 및 상황별 응대 방법 등 실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항목들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